

李碧華의 소설 「秦俑」과 영화 「古今大戰秦俑情」에 나타난 중국인의 癡情과 懷古, 無常의 정한

최 병 규*

국문초록

「고금대전진용정」(이하 「진용」으로 약칭)은 홍콩의 인기 작가 이벽화의 소설 「진용」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그 속에는 중국인들 특유의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치정과 회고, 그리고 무상의 세계를 매우 애잔하고 비장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영화의 극본인 이벽화의 소설 「진용」과 중국문화에 대한 이런 이해 없이 영화를 감상하다보면 이 영화에 대한 오해를 갖기 십상이다. 본고는 이런 생각에서 원작 소설 이벽화의 「진용」을 기반으로 한 영화 「진용」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문화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치정과 회고, 그리고 무상의 정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의 치정의 함의는 한국어에서처럼 부정적인 함의가 아니라 지고 지순하고 순수한 남녀 간의 깊은 정과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고란 옛것을 그리워하는 정서로 조상과 성현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중국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또 무상이란 인생과 세사의 덧없음에 대해 느끼는 감회를 말하는데, 이 역시 중국문화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된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진용」은 이벽화의 소설을 극본으로 이 소설의 주제를 잘 반영하여 제작된, 중국 옛사람들의 순수한 치정의 세계를 회고와 무상의 비통한 심정으로 그려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진용, 이벽화, 치정, 회고, 무상

목 차

I. 들어가는 말	IV. 무상
II. 치정	V. 나오는 말
III. 회고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bgchoi@andong.ac.kr

I. 들어가는 말

영화 「진용」¹⁾은 1990년 한국에서도 개봉됐던 홍콩 영화로, 2천여 년 전 기구한 운명의 사랑이 다시 부활하는 매우 기이한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감독은 「천녀유혼」의 감독인 정소동(程小東)이고, 주연 배우는 동경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의 수상자인 장예모(張藝謀)와 공리(鞏利)가 남녀주인공을 맡았으며, 그리고 특수효과 제작은 귀재(鬼才) 서극(徐克)이, 또 음악은 김용(金庸)과 함께 홍콩의 사대재자(四大才子)로 알려진 황집(黃霑)이 맡았다. 기발한 소재와 스펙터클한 상업영화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지닌 이 영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영화지만 필자가 이에 대한 논평을 진행함은, 이 영화가 단순한 상업영화가 아니라 홍콩의 재기 넘치는 인기 작가 이벽화의 소설 「진용」을 원작으로 한 내용 있는 영화일 뿐 아니라, 영화 속에 깊숙이 내재된 중국인의 문화적 정서²⁾를 지적함으로써 본 영화에 대한 독자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함에서이다.

사실 이 영화는 그 속에 내재된 중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대단히 싱겁고 지루한 영화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 한동아에 대한 몽천방의 이해하기 힘든 질긴 사랑과 인연이라든지 이미 죽은 장수가 연단(鍊丹)을 먹은 후에 불사조가 되어 여러 시대에 걸쳐 환생하고, 또 황릉에서 튀어나온 고대인이 현대인과 싸우는 장면 등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 자칫하면 관객들로 하여금 싱겁고 따분하게 느껴지기 십상이다. 거기다 이 영화는 전반부는 대단히 진지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코믹하고 구성이 다소 황당무계할 뿐 아니라 전반부와는 달리 여주인공 한동아가 저속하게 변모해 재미를 격감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영화와 소설을 음미하면 그 속에 품은 함의가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진용」은 생사와 시공을 초월한 몽천방의 감동적인 치정은 물론 옛날을 그리워하는 중국인들의 회고의 정과 고급의 차이에서 느끼는 격세지감에서 비롯된 세사의 무상함 등 일련의 형언하기 힘든 묘한 비애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는 모두 중국문화 속에 깊이 내재된 중국인의 문화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논문은 영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의 한계로 인해 전문적인 영화 이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작가 이벽화가 창작한 ‘소설」 「진용」과 이를 극본으로 만든 ‘영화」 「진용」의 텍스트 내용에 대한 상호비교를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중국인의 뿌리 깊은 문화적 정서를 되짚어봄에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 영화 「진용」의 원제목은 「古今大戰秦俑情」이다. 그 뜻은 ‘고금이 한바탕 전투를 벌이는 진시황 토용(土俑)의 정’이란 의미이다. 토용은 흙으로 만들어 무덤에 순장하던 인형을 말한다. 본고에서 필자가 그냥 「진용」이라고 표기한 곳은 영화와 소설 양자 모두를 가리키며, 굳이 구분하려고 할 때엔 영화 혹은 소설이란 말을 그 앞에 붙였음을 양해 바람.

2) 일본의 학자 藤井省三과 홍콩의 학자들이 편찬한 『文學香港與李碧華』와 劉登翰의 『香港文學史』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벽화는 현재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중화권의 작가로 그녀의 소설은 일반적인 애정소설 이상으로 그녀 소설 속의 애정은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 이상의 역사적, 사회적, 미학적, 철학적 풍부한 내함을 지니고 있다(「嚴格地說, 李碧華的小說並不是一般的純言情小說, 它們有比愛情更豐富的內涵, 在歷史的、社會的、美學的、哲學的層面上所給人的思考, 是一般的言情小說所不能比擬的。」- 劉登翰, 『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496쪽.). 또 이벽화의 소설은 꽤 속 깊이 중국고전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이벽화의 소설 「진용」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진용」에 나타난 중국인의 전통과 그 문화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치정

이벽화의 소설 「진용」과 영화 「진용」이 주는 가장 큰 감동이자 주제는 그 무엇보다도 소녀 한동아(韓冬兒)에 대한 낭중령(郎中令) 몽천방(蒙天放)의 영원히 변치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일 것이다. 작가 이벽화는 남녀 간의 진지한 정과 사랑의 묘사에 있어 천하제일이라는 평을 얻고 있는데,³⁾ 이런 진정하고도 기이한 사랑을 중국인들은 ‘치정’이라고 부른다. 사랑의 대상은 국적이 없듯 사랑의 성질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대동소이하겠지만, 필자가 굳이 중국인의 사랑과 ‘치정’을 운운함은 이런 ‘치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각별한 태도와 그 의미 때문이다.

‘치정’이란 ‘바보 같은 정’의 의미로 ‘정에 너무 깊이 빠져 이성을 잃은 경지’를 말한다. 현대 중국어에서의 치정은 주로 남녀 간의 정(사랑)을 가리키는데, 쉽게 말해 지고지순하고 진지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치정은 상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희생하기에 공리와 생사를 초월하는 맹목적인 지극한 사랑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⁴⁾ 공리성(功利性)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중국인이 이런 ‘바보 같은 깊은 정’의 의미인 치정을 높이 찬미하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지만, 그것은 중국인들이 한편으로 유가의 현실적 공리성과 실리, 실용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에 맞서 비공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감성적 측면을 부르짖은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지나친 실용성을 주장하는 유가적 의식형태에 대한 반발로 이해될 수가 있다.

「진용」속에서 몽천방은 충성스러운 용맹한 신하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지극히 나약한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는 진시황이 장생불로초를 얻기 위해 동해에 보내기 위해 차출된 500 명의 선남선녀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지만 그 가운데 한 처녀 한동아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깊은 정사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강산(江山)’과 ‘미인(美人)’ 가운데 미인을 선택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 후과로 그와 한동아는 대역죄로 극형에 처해지지만 이 작품은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매우 아름답게 극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진시황이라는 대제국의 건립을 꿈꾸는 야망 찬 영웅 정복자와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공과 업은 물론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몽천방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랑, 즉 치정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중국에서 유교의 이학 사상이 가장 극성했던 명청시기에 일부 선각적인 진보 문인들은 사람의 자유로운 정감과 열정을 저애하는 정주이학의 강령에 맞서 치정의 가치를 특히 내세우며 중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명말의 희곡 작가 탕현조(湯顯祖)는 그의 저명한 희곡 작품 『모란정(牡丹亭)』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3) 이벽화의 치정에 대해서는 鄭娜의 「天下言情第一人 - 論李碧華小說的創作特點」(『青春歲月』 21, 2013)와 張曉陽, 「女性目光下的女性和感情 - 淺談李碧華小說的女性形像塑造和愛情命運主題」(『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學報』 2: 3, 2011) 참고. 鄭娜는 이 논문에서 제목에서도 그러하듯이 이벽화를 남녀 간의 정 묘사에 있어 천하제일이라고 극찬하였으며, 張曉陽은 이 논문 143쪽에서 이벽화의 소설 창작에서 가장 탁월한 점은 정 묘사에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의 낭만적이고 처미(淒美)한 깊은 치정의 묘사에 뛰어났다고 하였다. 이벽화를 소위 「天下言情第一人」이라고 칭함은 비단 위의 鄭娜 뿐만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세인들의 보편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4) 원래 ‘치’라는 말은 무슨 일에 몰두하여 깊이 빠지거나 미혹된 상태를 지칭하는 뜻으로 곧잘 사용되어졌는데, 이를테면 ‘정치(情癡)’나 ‘서치(書癡)’, 그리고 ‘연치(硯癡)’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자신의 삶 속의 어느 한 면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것만 일념으로 추구하여, 주위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 이에 대해서는 최병규, 「세실신어를 통해서 본 치정과 무정의 경지」, 『중어중문학』 33, 2003, 258-59쪽 참고.

천하의 여자들 정이 있다지만 어찌 두려낭만한 자가 있겠는가! 그 사람(즉 유몽매)을 꿈에서 보고는 병이 생기고, 병이 위독한 가운데도 자신의 초상을 그려 세상에 남긴 후에 죽었도다. 죽은 지 3년 후에는 꿈속의 사람을 위해 다시 부활하였으니, 두려낭과 같은 여자야말로 바로 정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한 번 찾아오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살아있는 자는 그 때문에 죽기도 하며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살아 있을 때 함께 죽을 수 없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 이 모두는 지극한 정(즉 치정)이라고 할 수 없다.⁵⁾

여기서 탕현조는 꿈속에서 만난 사모하는 남성을 그리워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고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부활하는 두려낭의 지정(至情, 지극한 정)을 찬미하였는데, 이런 지극한 정이 바로 치정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 탕현조는 당시 엄격한 규범 속에서 살아가던 규방의 여성 두려낭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의 욕망인 치정에 대한 찬미를 통해 당시의 유행인 정주이학이 추구하는 ‘존천리, 멸인욕(存天理, 滅人欲, 즉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하다)’의 강령에 맞서 ‘이정반리(以情反理, 정으로써 리에 반발하다)’의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는 독단적인 유교가 지향하는 극단적인 도덕과 이성적 삶의 태도에 대한 반항으로, 감성과 열정에 찬 삶을 갈구하는 중국인들의 정서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미인과의 사랑과 치정에 얽힌 이야기는 중국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다. 그 가운데 미인의 절대적 가치를 찬미한 노래라면 백가를 몰아내고 유가를 독존시하던 대제국의 시대 한대(漢代)의 궁중 악사 이연년(李延年)이 지은 「가인곡(佳人曲)」을 꼽을 수가 있다. 이 「미인송」은 작자가 미녀 누이동생을 한무제에게 소개시키기 위해 지은 노래인데, 그녀는 곧 한무제의 총애를 얻어 이부인(李夫人)으로 승격된다. 당시 그가 지은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북방에 미인이 있으니 그 아름다움은 세상에 둘도 없이 뛰어나구나. 한번 돌보면 성이 무너지고, 다시 돌보면 나라가 무너지네.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알 게 뭐람. 미인은 다시 얻기 어렵거늘.⁶⁾

절세미인의 가치를 칭송한 이 노래는 ‘강산’보다 ‘미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공리와 이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비공리적, 치정적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를 중시하고 공덕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한무제는 한때 이 미녀에 빠져 자신의 본부인을 멀리하고 사치를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사랑을 위해 강산을 멀리하지는 않았기에 혼군으로 전락하진 않았다. 그러나 서초폐왕으로 잘 알려진 영웅호걸 항우는 강산보다 미인을 더 좋아해 결국 한나라에 대패하여 미인 우희도 자결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공업(功業)과 사랑은 모두 온전하게 얻기란 어려운 것이다. 영웅호걸들도 그

5) “天下女子有情，寧有如杜麗娘者乎！夢其人即病，病即彌連，至手畫形容，傳於世而後死。死三年矣，復能冥漠中求得其所夢者而生。如麗娘者，乃可謂之有情人耳。情不知所起，一往而深。生者可以死，死可以生。生而不可與死，死而不可復生者，皆非情之至也。”- 湯顯祖, 『牡丹亭』, 臺灣: 里仁書局, 1986, 1쪽.

6) “北方有佳人，絕世而獨立，一顧傾人城，再顧傾人國。寧不知傾城與傾國，佳人難再得。”- 葉慶炳, 『中國文學史』, 臺灣: 弘道文化事業, 1980, 79쪽.

리하였거늘 일개 무사였던 몽천방은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강산을 내던졌던 항우의 의리와 치정은 그 후 수많은 중국의 다정 문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은 점(7)은 중국문화 속에 내재된 치정에 대한 중시를 잘 보여준다.

「진용」은 중국인들의 이런 치정의 세계와 그 가치를 매우 잘 구현시킨 작품이다. 주인공 몽천방은 당시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러하듯 충성스러운 신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진시황을 자객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무릅쓰고 구한 공로로 인해 낭중령이란 벼슬을 하사받아 황제를 보위하지만 궁으로 소집된 500여 동녀 가운데 한동아와 사랑에 빠져 두 사람은 결국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 대역지죄를 범하게 된다. 말하자면 몽천방은 충성(즉 임금)과 사랑(즉 애인) 가운데 사랑을 선택한 것인데, 그것은 오직 사랑을 위해 그가 그 동안 이룩한 모든 명예와 성취를 한순간에 내팽개치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동아와의 사랑에 책임을 지며 심지어 죽을까지도 감수하였다.

이런 몽천방과 마찬가지로 한동아 역시 화형을 당하기 전에 몽천방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면서 그의 입 속에 장생불로 알약을 몰래 넣어주고 그를 향해 환한 미소를 보이며 미련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었다. 특히 그녀가 몽천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나비 같이 불길 속으로 훨훨 달려가는 영화 속의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치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생사를 초월한 두 사람의 이런 깊은 치정은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근 이천년이 흘러 민국시대에 삼류 배우인 주리리(朱莉莉)로 환생한 한동아는 동료 배우이자 악한인 백운비의 꼬임으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공교롭게도 비행기가 진시황릉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진흙 인형이 되어 황릉을 지키는 호위무사 몽천방을 깊은 잠에서 깨우게 만든다. 진흙을 툭툭 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몽천방은 주변에 쓰러져있는 주리리를 보자 바로 동아로 인식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한다. 그런데 문제는 주리리가 몽천방과의 전생의 애절한 인연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가오는 몽천방을 귀찮은 괴물로 여기며 회피하면서 이 작품은 갈등의 깊이를 더해간다.

사실 「진용」의 감동과 묘미는 몽천방과는 달리 주리리가 자신의 전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전생의 연인 몽천방을 요괴 취급하면서 멀리한 반면 몽천방은 일방적으로 그녀에 대한 치정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삼생에 걸쳐 애처로울 정도로 그것에 집착하여 갈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몽천방은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꾼 한동아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백운비(白雲飛)와 결합해 자신을 일제 치하 중국 동북의 인체실험연구소에 팔아넘기기까지 한 것을 알고는, 마치 그녀에 대한 자신의 치정을 포기해버리듯 고이 품속에 간직한 그녀의 신을 절벽 아래로 멀리 던져버린다. 특히 영화는 이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풀 보여주면서 신이 긴 포물선을 그리며 멀리 훨훨 날아 한적하고 낮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화 속 우

7) 소식(蘇軾)은 「虞姬墓」를 지어 영웅, 미인의 처량한 종말을 애도하였고, 청대의 여류 사인 이청조(李清照)도 「항우(項羽)」라는 시에서 “살아서도 영웅이었지만, 죽어서도 귀신 중의 영웅이 되었네. 지금도 항우를 그리워하니, 혼자서 목숨을 위해 강을 건너지 않았네. (生當爲人傑, 死亦作鬼雄. 至今思項羽, 不肯過江東.)”이라고 읊었다. 이 밖에도 장사전(蔣士銓), 오위업(吳偉業) 등의 청대 여러 시인들도 항우와 우희의 절개와 사랑을 찬양, 애도하였으니, 이는 후세 중국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절개를 중시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규, 『다시 쓰는 중국풍류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18, 67쪽 참고.

리들의 마음을 잔하게 적시는 가장 감동적인 화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치정이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고독하고 처량한, 바보 같은 깊은 정 의 경지임을 영화는 말해주면서 몽천방의 외롭고 애절한 치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봉건고대 권위주의 시대의 남성 몽천방이 아무리 치정파(癡情派)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싫어하며 배신까지 감행한 동아를 더 이상 연인으로 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멀리하는 그녀를 떠나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는 영원한 안식처인 황릉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리리가 자신이 던진 신발을 주워들고 찾아와 그녀를 진정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오직 몽천방 한 사람 뿐이라며 그의 품속에 몸을 던진다. 이는 몽천방의 치정이 결국 주리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답답한 독자와 관객들의 마음을 한 순간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 부분은 치정이 처음엔 상대방의 공감과 이해를 얻기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임을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몽천방은 주리리를 안고 '동아'라고 외치며 감격해하면서, 그녀를 안고 두 사람이 돌아갈 영원한 안식처 황릉을 향해 말을 몰아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황릉을 파괴하려는 도굴범 백운비와 맞서 싸우는데, 그 외중에 주리리는 유탄에 맞아 죽고, 침입자들의 난동에 황릉도 모두 붕괴되면서 그의 치정도 비극적인 말로로 끝나는 듯 몽천방과 백운비도 모두 지하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몽천방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어도 그의 치정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 않는다. 다시 세월이 흘러 1990년대에 몽천방은 진시황릉을 복원하는 연구소원이 되어 나타나고, 주리리는 젊은 일본 여학생 차림의 여행객이 되어 두 사람은 진시황릉에서 또 우연히 눈이 마주친다. 황릉의 작업자로 환생한 몽천방은 중국에 관광 온 일본 여성으로 환생한 동아를 우연히 발견하고 눈에 익은 여성인 듯 유심히 바라보는 것으로 영화와 소설은 모두 끝이 난다. 이처럼 몽천방의 지극한 치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지속됨을 「진용」은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진용」은 동아를 알아보고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몽천방과는 달리 동아는 그를 모르는 것처럼 그림으로써 혼자 몰래 애태우는 몽천방의 치정의 경지를 슬픈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치정을 지닌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또 하나의 비애이기도 함을 「진용」은 말하고 있다.⁸⁾

Ⅲ. 회고

「진용」에 나타난 중국인의 정은 치정을 부르짖은 것 외에 옛날을 향수하며 그리워하는 중국인 특유의 회

8) 이벽화는 소설을 통해 남녀 간의 사랑을 대체로 비극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작품 속 여주인공들은 모두 치정이 넘치지만 상대인 남주인공은 무정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청사(靑蛇)」나 「연지귀(胭脂扣)」에서 다정한 여주인공들에 비해 남주인공들은 모두 위선적이고 무정하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진용」에서는 이와 반대로 남성이 치정을 지녔다. 여하튼 작가는 남녀 간 사랑의 불협화음을 통해 이경은의 말대로 “작가는 사랑을 모두 비극으로 끝냄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의 로맨스는 없음’을 보여준다.”(이경은, 「이벽화 텍스트의 홍콩 노스텔지어와 욕망연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2008, 110쪽.)는 느낌을 준다.

고(懷古⁹⁾)의 정한이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은 유가적 사상의 영향으로 옛 성인들에 대한 존중과 숭배의 식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귀고천금(貴古賤今)’의 관념을 지니고 있다.¹⁰⁾ ‘귀고천금’이란 옛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의 것들을 천하게 본다는 뜻이다. 유가에서는 항상 지금은 옛날만 못하며, 지금의 사람들도 옛사람들만 못하기에 언제나 고인들로부터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물론 이런 사상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악영향도 끼쳤지만,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고 옛날을 통해 지금을 배우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진용」은 중국인들의 이런 뿌리 깊은 회고의 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회고의 정은 옛날과 다른 세상에서 느끼는 격세지감 내지는 상실감 등에서 비롯된 옛날을 그리워하는 감정으로도 표현되는데, 「진용」에서는 이런 정서가 많이 표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진대의 인물 몽천방이 1930년대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느끼게 되면 일련의 감정들이 그러하다. 그가 민국시대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낯설어 자신은 더 이상 그 시대와 융합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 취급하면서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을 알면서 그는 큰 괴리감과 상실감,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소설 「진용」에서는 이런 고금의 다른 정서를 통해 느끼는 몽천방의 상실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¹¹⁾ 심지어 일찍이 생사를 같이한 연인 동아의 환생이라고 할 수 있는 주리리조차도 그를 배반하여 이용하려고 함을 알고, 몽천방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주는 유일한 안식처라고는 지하의 황릉 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몽천방의 단순한 격세지감이 아니라 타락한 현대를 직접 겪은 후에 순수하고 진실한 고대로 돌아가고픈 심정으로, 이 역시 옛날을 동경하는 중국문화의 일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순수한 고대 사회에 비해 현대 사회는 비정하고 타락하였음을 「진용」은 도처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문명사회의 여러 가지 이기들과 무엇보다도 이곳에 밝아 진정이 없는 현대인들의 타락한 심성은 몽천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몽천방의 황릉으로의 복귀는 바로 현대 사회의 타락으로 인한 고대 순수 사회로의 복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진용」에 나타난 회고의 정은 고대인들의 삶과 정신을 잘 표현한 아름다운 화면을 통해서도 유감없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진용」 영화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미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몽천방과 한동이라는 옛 사람들의 치정의 고사에서 풍기는 고아(古雅¹²⁾)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고아한 아름

9) 회고(懷古)의 뜻은 우리가 흔히 국어에서 사용하는 회상한다는 뜻인 회고(回顧)와 다르다. 후자는 되돌아본다는 의미일 따름이지만 전자는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10) 중국 고대 문학 창작론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은 ‘성인 숭배’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중국문학비평서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협(劉勰)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는 「징성(徵聖), 「원도(原道)」 등의 편을 통해 성인 숭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葉太平, 『中國文學的精神世界』, 臺灣: 正中書局, 1994, 117~147쪽 참고.

11) 이벽화의 소설 「진용」에서는 영화 속에서 몽천방이 양복으로 갈아입고는 주리리, 백운비 등과 함께 분위기 있는 양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웨이터가 건네는 메뉴판을 보며 그것이 음식인 줄을 알고 냅새를 말고는 자신은 안 먹겠다고 하는 장면을 더욱 부연하여 묘사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리리가 몽천방을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종이도 모르느냐고 하자, 백운비는 종이는 한대에서야 비로소 발명되어 진대의 몽천방은 그것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이어 이벽화는 몽천방의 격세지감에서 비롯된 무력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몽천방은 더욱 기가 죽었다. 자신은 그래도 진시황 폐하를 곁에서 지키던 ‘난사람’인데, 이 현대 시기에선 이렇게 전락하여 밥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으니 앞으로의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그는 이런 걱정으로 마음은 더욱 의기소침해졌다(蒙天放越發氣餒了。自己也是陛下身邊的高人，一旦淪落到這年代，連找點吃食也很困難，往下日子如何過？一時間心灰意冷.)” - 李碧華, 『作品集1 青蛇』, 北京: 新星出版社, 2018, 218쪽. 이 책은 이벽화의 또 다른 대표작 『青蛇』란 제목으로 『秦俑』과 『誘僧』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12) ‘고아(古雅)’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아(高雅)’의 개념이 아니다. 고아(古雅)는 에스러움에서 풍겨나는 우아함을 말한다.

다음은 옛 것을 중시하고 그리워하면서 옛사람들의 정신과 세계를 미화하는 중국인들의 ‘회고의 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선 남주인공들을 살펴보다라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진정성을 모두 갖춘 고대인 몽천방의 진실한 모습은, 진정성이 없고 ‘돈이면 다라는 속물적 근성을 지닌 현대인 백운비의 형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작자는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지닌 두 사람을 통해 고대인과 현대인의 인성을 잘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¹³⁾ 사랑하는 여인과의 정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벼슬과 명예는 물론 죽음까지 불사하는 몽천방과는 달리 백운비는 여성을 노류장화로 보고 이용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로 묘사되었다. 고대와 현대인 사이의 기질적 차이는 여주인공 한동아와 주리리 형상의 차이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다. 이 소설과 영화는 모두 고대의 한동아와 그녀가 환생한 현대의 주리리를 묘사함에 있어 두 사람의 인품과 기질에 있어 의도적으로 많은 차이를 부여하고 있다. 한동아는 궁에 들어와 자살을 기도할 만큼 강한 주관과 개성, 그리고 반항적인 기질을 지닌 당찬 소녀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내던지는 굳은 절개를 지녔음은 물론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애인의 영생을 기원하여 자신의 입 안에 연단 알약을 감췄다가 그것을 애인의 입속에 몰래 넣어주는 기지와 대범하고 헌신적인 마음을 지닌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30년대 삼류배우 주리리는 좀 덜떨어진 행동에다 천방지축 날뛰는 경박한 성격으로 이렇다 할 장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 당시 연예계의 천박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더욱이 그녀는 백운비의 꼬임에 빠져 몽천방을 배신해 그를 팔아넘기기까지 한다.¹⁴⁾ 이처럼 「진용」은 동일한 인물을 고대와 현대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품격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락하고 닳아빠진 현대인과는 다른 옛 사람들의 순수함과 격조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는 주리리와 몽천방이 황릉에서 함께 빠져나온 뒤에 주리리가 마치 옛날 한동아가 하듯 강물에 손을 담가 세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과거 해맑고 순수했던 동아의 모습과 구별되는 짙은 화장의 현재 주리리의 천박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주리리가 건기가 힘들다며 몽천방의 등에 업혀 가는 장면을 영화가 클로즈업한 것도 그녀의 저속한 뒷모습을 통해 과거의 동아와 다른 현대 동아 즉 주리리의 천박한 모습을 일부러 강조하고자 함이다. 또 이 영화 장면 가운데 한동아가 마루 위에서 물이 담긴 그릇들을 젓가락으로 두드리며 아름답고 부드러운 화음을 내고, 몽천방은 마당 아래서 그 가락에 맞춰 떨어지는 낙엽에 칼을 휘두르며 검술을 연마하는 장면은 시각과 청각이 잘 어우러진 영화 속의 멋진 장면으로, 이는 고대인들의 생활 속의 우아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처형될 때 진시황이 몽천방의 옛 공을 생각해 그를 살려주려고 하였지만 그는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진흙 인형으로 황릉에 묻히겠다며 죽음을 선택한 것

13) 물론 악역을 맡은 백운비가 1930년대의 현대인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백운비가 황릉을 도굴할 때 내뱉은 “지금 세상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식의 천박한 출세주의를 외친 대사는 물질만능의 배금주의가 맹배한 현대인의 심리를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소설과 영화 「진용」은 현대인들의 이런 속물적 근성을 묘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14) 이벽화의 소설 「진용」에서는 주리리의 이런 타락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화 속에서도 주리리는 백운비와 동조하여 몽천방을 살아있는 골동품으로 간주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화학실험실에 팔아넘기는 일에 동의하지만, 소설에서는 이런 주리리의 타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나는 중명함을 배웠다. 의리보다 재물이 중하다는 것을!” 유지하고 탐욕적인 본성이 그녀의 마음을 난폭하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스스로 위로하였다. “사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야. 어떨 때는 남이 나를 배신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남을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지. 여하튼 공평하잖아.”(我學得聰明了。還是物重情義輕! 稚嫩的, 貪婪的本性, 她也把心一橫。但又自己說服自己: “做人就是這樣, 有時候人出賣我, 有時候我出賣人。反正扯平了。”) - 이벽화, 앞의 책, 222쪽.

이라든지, 동아 역시 몽천방과의 사랑의 대가로 처형되지만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띠며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은 이 영화 속 가장 인상적인 아름다운 화면으로 한동아의 치정과 함께 고대인들의 격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영화는 이 장면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가사의 주제 곡이 울려 퍼지게 하였는데, 고대인들의 기품과 사랑의 격조를 매우 부각시키고 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불이 내 몸을 태워, 불길이 나를 녹이고, 나의 마음을 태워 사랑의 찬가를 토하게 하네. 자신을 돌아 보지도 않고 사랑의 붉은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나는 황토 흙이 내 몸을 덮는 것을 원하진 않지만, 원컨대 나로 하여금 시를 적어 천만세가 지나도 세상이 우리가 누린 화복(禍福)을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네.

불이 내 마음을 태워, 깊은 사랑의 낙인을 찍고, 불에 탄 나의 마음은 황토 흙도 나를 묻어버리지 못하리.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사랑의 붉은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나는 황토 흙이 내 몸을 덮는 것을 원진 않지만, 원컨대 나로 하여금 시를 적어 천만세가 지나도 세상이 우리가 누린 화복을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네.¹⁵⁾

사실 「진용」은 한 쌍의 고대 남녀의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사랑을 찬미한 것 이전에 옛날 황제의 능의 비밀을 그린 영화로 그 저변에는 옛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미련과 회고의 문화심리가 깔려있다.¹⁶⁾ 진시황릉에 대한 호기심은 현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진시황릉의 진모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였다. 일찍이 진대(晉代)의 왕가(王嘉)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위진남북조시대 소설 『습유기(拾遺記)』라는 저서 속 「원비(怨碑)」라는 제목의 문장에는 진시황릉의 비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옛날 진시황이 무덤을 지을 때에 천하의 진기한 물건들을 모아 넣었고, 일하던 인부들도 생매장하였다. 또 먼 곳에 있는 기이한 보물들도 무덤 속에 들어부었으며, 강·바다·내·도랑과 여러 산악의 모양도 만들었다. 그리고 사당목과 침단목으로 배와 노를 만들고, 금으로 물오리와 기러기를 만들었으며, 유리와 여러 보석으로 거북과 물고기를 만들었다. 게다가 바다 속에는 옥으로 고래를 만들었고, 양광주를 머금게 하여 별로 삼았으며, 그로써 등불을 대신하였다. 그 빛이 무덤 안에서부터 나왔는데, 대단히 정밀하고 신묘하였다. 옛날 무덤 속에 생매장된 인부들도 무덤이 발굴될 때에 모두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인부들은 무덤 안에서 돌을 다듬어 귀한 신선들의 모습을 만들었고, 비문과 찬사도 적었다. 한초에 이 무덤을 발굴하고 여러 사서들을 조사하여도 여러 신선들의 상을 제작하였다는 말은 없었다. 그런 즉 그것은 생매장된 장인들의 소행임을 알 수 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비문을 다시 적었는데, 그 문장이 잔

- 15) “焚身以火，讓火燒熔我，燃燒我心，噴出愛的頌歌。奮不顧身，投進愛的紅火，我不願意，讓黃土地埋了我。讓我寫下詩，讓千生都知道有個我，讓萬世都知道有個你，共享福禍。焚心以火，燙上愛的深烙，燃燒的心，黃土地埋不了我。奮不顧身，投進愛的紅火，我不願意，讓黃土地埋了我。讓我寫下詩，讓千生都知道有個我，讓萬世都知道有個你，共享福禍。” 전술하였듯이 이 곡은 홍콩의 예인이자 작가인 귀재 황점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 그는 영화 「천녀유혼」의 주제곡을 비롯해 많은 영화의 주제곡을 작사 작곡한 이력도 있다. 또 위의 가사는 만다린(북경어)의 가사로 광둥어의 가사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의는 대동소이하다.
- 16) 중국인들은 옛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민족이다. 골동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애호는 세계 그 어느 민족을 능가한다. 그들은 항상 옛 것을 중시하여 모방하고, 전통을 답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전술하였듯이 이는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호함을 원망하는 말이 많아 “원비”라고 불렀지만 『사기』는 이를 생략하여 기록하지 않았다.¹⁷⁾

위 문장에서 언급한 “바다 속에는 옥으로 고래를 만들었고, 아광주를 머금게 하여 별로 삼았으며” 등과 같이 믿기 힘들만큼 호화로운 진시황릉에 대한 기이한 기록은 다분히 과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진시황릉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심과 호기심의 반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옛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고(好古)’의 심리¹⁸⁾가 깔려있다. 영화 「진용」에서 선을 보인 진시황릉 내부의 기괴하고 놀라운 장치와 설비들에 대한 묘사도 예로부터 전승되어진 중국인들의 피 속에 내재된 호고와 회고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의 이런 회고의 정은 현재는 바로 전생 즉 옛날의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로 보기에 자연히 윤회환생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원래 윤회란 부처의 지위인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중생들의 삶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돌아가며 거듭나게 된다는 불교의 교의 중의 하나이다. 또 불교에서는 삼세(三世)의 인과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삼세는 전세(前世), 금생(今生), 내세(來世)를 말하며, 사람은 스스로 쌓은 덕과 업을 삼세에 걸쳐 짊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런 불교적 사상에 중국 고유의 전통사상인 선악인과응보(善惡因果應報)의 관념¹⁹⁾이 합쳐져 중국 특유의 인과응보의 윤회사상이 형성되었다. 「진용」에서는 비록 종교적이고 교화적인 선악의 문제에는 접근하지 않았지만 전생의 업에 따라 현생(즉 금생)의 내가 태어나는 윤회환생을 얘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삼류 배우 주리리의 전생은 동남동녀로 차출된 한동아이고, 그의 내세인 후생(後生)은 학생으로 보이는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행객 정자(靖子)로 환생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500명의 동남동녀들이 불로초를 찾아 진나라를 떠난 후에 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정착했다고도 하니 동아가 일본인으로 환생할 가능성도 적진 않다. 여하튼 「진용」에 나타난 윤회환생은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비애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 다시 만난 몽천방과 한동이는 과거 전생의 애절한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사람은 네 눈이 마주쳤지만 그저 어디서 본 듯한 어렴풋한 느낌만 가질 따름이다. 설령 몽천방은 그것을 기억한다 하더라도²⁰⁾ 1990년대의 한동이는 1930년대의 주리리처럼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였다. 그리하여 몽천

17) “昔始皇為塚，斂天下瑰異，生殉工人。傾遠方奇寶於塚中，為江海川瀆及列山嶽之形。以沙棠沉櫃為舟楫，金銀為晷雁，以琉璃雜寶為龜魚。又於海中作玉象鯨魚，銜火珠為星，以代膏燭，光出墓中，精靈之偉也。昔生埋工人於塚內，至被開時，皆不死。工人於塚內琢石為龍鳳仙人之像，及作碑文辭讚。漢初，發此塚，驗諸史傳，皆無列仙龍鳳之制，則知生埋匠人之所作也。後人更寫此碑文，而辭多怨酷之言，乃謂為‘怨碑’。『史記』略而不錄。”-中國叢書編輯委員會，《中國文學欣賞全集》，臺灣：莊嚴出版社，1983，571-572쪽.

18) 『논어』에서 공자도 자신이 ‘옛 것을 좋아하고 배움에 민첩하다’는 의미의 ‘호고민학(好古敏學)’으로 자칭하고 있다. (“子曰：我非生而知之者，好古，敏以求之者也。”-『論語』「述而」，楊伯峻 역주，이장우·박종연 한역，《논어역주》，중문출판사，1997，152쪽.)

19) 중국 고대 문헌에는 선악인과응보의 내용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상서·탕고(湯誥)』에서는 “선한 행동은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은 화를 부른다.(福善禍淫)”란 말이 있고(권덕주 역해, 『서경』, 해원출판사, 2000, 129쪽.), 『주역·곤(坤)·문언(文言)』에서는 “선을 쌓은 집은 반드시 경사가 남아돌고, 악을 쌓은 집은 반드시 재앙이 넘친다.(積善之家，必有餘慶；積不善之家，必有餘殃.)”이라고 하였으며(黃壽祺·張善文 撰, 『周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96, 33쪽.), 또 『韓非子』 「安危」에서도 “화복은 선악에서 비롯된다.(禍福隨善惡)”란 말도 있다(陳奇猷 校注, 『韓非子新校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559쪽.).

20) 사실 이벽화의 소설 「진용」에서는 몽천방이 일본인이 되어버린 동아를 보고는 대변에 알아차렸지만 두 번 다시 자신을 위해 그녀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만 묘사하였다. “……誕生在異國，成了一個日本女孩，但冥冥中，還是魂歸故里。女孩瞥到他，自是認不出來，只羞澀單純地一笑，似曾相識。他很越趨 - 不想她為他再死一次；但，又忍不住 -.”

방은 또 고독과 비애감에 젖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소설과 영화 「진용」은 치정을 지닌 자들의 고독하고 슬픈 운명과 격세지감을 통해 느끼는 회고의 정한을 그려냄으로써 인생과 세사의 무상함과 무정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IV. 무상

중국문화 특히 중국문학의 특색이라면 언제나 인생과 삶에 대한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시의 기조는 언제나 대자연의 무궁함에 비해 지극히 짧고 묘소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노래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중국문학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시경』과 『초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는 위진시대의 대표작 ‘고시십구시’를 보면 19수 가운데 거의 모두가 급시행락(及時行樂)과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급시행락’이란 인생은 짧기에 때를 만나면 즐거움을 행하라는 것인데, 이는 바로 삶과 인생의 무상함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시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당대 시인 가운데 호방함과 진취적 낭만성을 지닌 이백도 「장진주」를 비롯한 무수한 시에서 삶의 무상함을 수시로 노래하였으며, 이백과 함께 호방파 중국문인을 대표하는 송대의 문인 소동파조차도 그의 대표작 「적벽부」에서 대자연의 무궁함에 비해 덧없는 짧은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시가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고전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명청시대의 장편소설인 『삼국연의(三國演義)』와 『홍루몽(紅樓夢)』 등의 작품들도 그 주제가 결국은 모두 인생과 세사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다.²¹⁾ 따라서 중국문학은 종종 인생무상을 바탕으로 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용」의 전반적인 기조도 세사의 무상함과 그에 대한 깊은 비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진시황은 자신의 강산이 천세토록 영원하길 기원하고 그런 영화를 만세토록 누리기 위해 장생불사를 기도하여 500명의 동남동녀들을 징집해 동해로 파견하여 장생불로초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결국 쉰 살의 나이에 객사하였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제국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멸망해버렸다. 물론 그 원인은 그의 지나친 욕망이 부른 폭정이 화근이었다. 「진용」은 진시황이 생전에 이룩한 위업과 야망들이 후대에서 보면 결국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제업(帝業)에 대한 허무함과 나아가 인생과 세사에 대한 무상함으로 점철되어 있

- 이백화, 앞의 책, 249쪽.

21) 『삼국연의(三國演義)』 소설의 분위기와 주제, 그리고 그 풍류의 세계는 사실 작품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다음의 사(詞)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 “굴실굴실 흘러 동으로 가는 긴 강물, 파도 물거품 옛적의 영웅 다 씻어 가버렸네. 옹고 그름, 성공과 실패, 머리 돌리는 사이 공(空)으로 돌아갔네. 푸른 산은 예나 다름없건만 그 몇 번이나 석양빛이 붉었다 또 져들까? 다만 백발의 어부들만 강가에서 언제나 그러듯 가을 달과 불바람을 대하며, 한 주전자의 탁주로써 기쁘게 서로 만나, 고금의 수많은 이야기 소담(笑談) 속에 부쳐보네. (滾滾長江東逝水, 浪花淘盡英雄. 是非成敗轉頭空, 青山依舊在, 幾度夕陽紅. 白髮漁翁江渚上, 慣看秋月春風. 一壺濁酒喜相逢, 古今多少事, 都付笑談中.)” - 羅貫中 撰, 『三國演義』, 臺灣: 三民書局, 1989, 1쪽. 그리고 『홍루몽』의 주제는 이 소설의 작자가 책에서 ‘큰 주제는 정을 얘기한 것’이라는 ‘대지담정(大旨談情)’이라고 밝혔듯이 정, 즉 치정(癡情)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삶과 인생에 대한 깊은 무상함과 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 생전 진시황의 만수무강을 외치며 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바쳤던 몽천방이 2천여 년이 지나 능에서 깨어나 보니 세상은 이미 바뀌어 그 동안 지나간 조대만 하더라도 진, 한, 삼국, 위, 진, 남북조, 수, 당, 송, 원, 명, 청 등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으며, 진시황은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졌음은 물론, 영원히 보존되리라 생각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보류였던 지하에 숨겨둔 능조차도 도굴범들에 의해 파헤쳐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 영화에서도 몽천방이 현대인들과의 만남과 갈등을 통해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느낀 후에 만리장성 아래 혼자 앉아 참담한 마음으로 옛날을 회고하다가 문득 자신의 머리 위를 날아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에 대한 깊은 무상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벽화의 소설 「진용」에서는 몽천방이 겪은 격세지감의 허탈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이런 무상함의 회한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장성, 그것은 여전히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지만 그는 지금 사랑하던 사람을 멀리 보내고 다만 외롭게 혼자 남아 있다. 이 웅대한 변방에서 사람은 마치 작은 점에 불과하였다. 태양이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중첩된 산봉우리는 마치 이미 말라버린 붉은 피로 변했다. 지는 태양은 피와 같고 또 하늘가에 걸린 큰 손과도 같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호령하는 듯하였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신앙이었다. 몽천방은 칼을 뽑아 위로 돌진하였다. 그는 미친 듯 달렸다.……그도 한 때는 영웅이었다. 그러나 영웅도 이런 건지기 어려운 시절이 있다. 영웅의 기가 꺾인 것이다. 그 때 갑자기 귀를 찌르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들어보니 쇠로 만든 괴물이었다. 같은 괴물이 한뼘 지하의 황궁으로 돌진해 그를 잡아서 깨게 만들었다. 그렇다. 그것은 비행기였다. 사회는 이미 이렇게 진보하였다. 사람도 공중에서 마음껏 날 수 있고, 폭탄과 화약도 하늘에서 땅으로 투척할 수가 있다. 이삼천 년 전의 두터운 장성의 벽은 그 모든 이기(利器)와 크나큰 습격들을 막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면 굴곡진 모양의 벽이 역사의 중압을 견디지 못해 허리가 굽어있고, 무수한 틈에는 잡초들이 무성해 그 웅장함은 빈껍데기일 따름이며, 폭격의 흔적으로 낡고 황폐해져 그 어떤 적도 쉽게 공략할 수 있어보였다. 아마 적은 북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내란이나 동족상잔만으로도 이미 사람(즉 자신)을 목숨을 구해 달아나게 만들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게 하였다. 비행기는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다. 이는 어디서 온 적인가? 사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몽천방은 절망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땅바닥에 꿇어앉아 작렬하는 붉은 태양 아래서 마치 어린 아이 같이 목이 메어 통곡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당시 그렇게도 힘들게 쌓아온 '만세기업(萬世基業)'이란 말인가?²²⁾

22) “長城。依舊雄偉無涯的長城。他目前愛人遠去，只孑然一身，在這傲岸的邊防止，人，有如一個小黑點。太陽下山了。層層疊疊的峰巒，變作一抹紫紅。像已枯的血。殘陽似血。又似一只掛在天邊的大手，發出號召的力量，令他回家去－這是他惟一的信仰。蒙天放拉劍直往上升。一直地狂奔，……他也曾是個英雄呀，只是，英雄也有這般難過的一刻。英雄氣短。忽而，他聽到一陣刺耳的巨響，抬頭一看，是一輛鐵鑄的怪物，同樣的怪物，曾經闖進地底的幽宮，把他解放出來。是的，這是飛機。社會已經這樣的進步了！人都可以在空中激遊了，炮彈火藥，也可自空中往下投擲。兩三千年前，厚厚的城牆，抵擋過一切鏢鎔的利器，防禦重大而突然的襲擊。只是，如今它的作用等於霧。看真一點，起落有致的城牆，受不了歷史的重壓而微微佝偻著，無數的裂縫，叢生著雜草，雄偉只是軀殼，它荒蕪已久，一身炮彈的殘跡。任何敵人都可一攻而下。也許敵人不只在北方，也在東方，南方，西方，或者只是內哄，自相殘殺，就已經令人人疲於奔命，無所適從。飛機呼嘯而去。這是來自何方的敵人呢？四周沉寂下來。蒙天放按捺不住絕望的傷感。他陸地下跪，在暴烈的紅色光團中，痛哭失聲。他痛哭著，一如嬰兒。這就是當初他們致力的“萬世基業”麼？”- 이벽화, 앞의 책, 231~232쪽.

이처럼 소설에서는 몽천방이 이전여 년 만에 깨어나 자신이 한때는 영웅이었지만 이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알 수 없는 주위의 무수한 적을 맞이하여 큰 심리적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서 심지어 대성통곡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고금의 변화를 통해 느끼는 격세지감과 세사의 무상함에 크게 통곡하는 「진용」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허탈감과 무상함에 대한 비애의 감오(感悟)는 비단 몽천방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다. 비록 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원작 소설의 말미에는 진시황이 몽천방 앞에 나타나 그와 한바탕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세사의 무상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몽천방)는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것은 50여 세의 기력이 다한 영웅이었다.……그는 바로 진시황이었다. 차림새는 여전히 일류였지만 이미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 눈빛은 당시의 위엄을 드러냈지만 머리칼은 흐트러져 전체적으로는 한물간 것으로 보였다. 그는 머리를 들고 서 있었다. 몽천방은 크게 놀라 뒤로 한걸음 물러났다. “폐하!” 진시황이 옛날의 신하를 보니 격세지감을 느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복이 떠난 후로 돌아오지 않았고, 짐은 460여명의 유생들을 함양성 밖에 묻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5번이나 순행을 하다가 사구에서 병을 얻어 최후의 승부를 걸며 남은 장생불로 약을 먹었다.” “폐하께서 결국 단약을 드셨군요?” 그는 머리를 꺼덕이며 말했다. “짐이 가사(假死) 상태에 있을 때 온몸에 기이한 냄새가 풍겼고 조고가 대어섯 환관과 함께 짐을 온도 조절이 가능한 가마 수레 안에 두고는 그 곁에 한 석이나 되는 전복을 두어 냄새를 없앴으며 구원에서 함양으로 바로 달려 여산의 능에다 묻었다.” “폐하께서 만고의 영웅이신데 애석하게도 세상이 이미 변하였사옵니다.” 시황제는 스스로 비웃으며 말했다. “짐은 다만 폭군이란 악명만 영원토록 얻게 되었도다.” 이에 몽천방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옵니다. 성군인지 악마인지 천추의 공과는 쉽게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황제는 그와 같은 시대에서 같은 운명을 가진 이 영웅을 보니 마음이 좀 풀어졌다. “이유 없이 짐과 네가 천추토록 죽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에선 용납되지가 않구나.” “폐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실려옵니까?” 시황제는 침묵을 지키며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르겠다. 이제 짐에겐 입추의 땅도 없구나.” 진시황은 자신의 손으로 지은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지하의 궁전을 돌아보며 옛날에는 그것이 만세토록 전해져 천하에 군림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것은 37년 동안 72만 명을 동원한 거국적인 재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다.……그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었다. 두 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정기가 뿜어 나왔다. 그의 몸은 죽지 않았고, 마음도 죽지 않았다. “하하하! 짐이 옛날 맨 손으로 일망무제의 천하를 호령하였는데, 지금 몸 둘 곳이 없단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짐은 다시 옛날의 위풍을 찾을 것이야. 하하하!” 그는 미친 듯 소리치며 고고하게 북쪽으로 걸어들었다.²³⁾

23) “他見到一個身影。這是個意態關珊的遲暮英雄，五十多歲了。……他，就是秦始皇帝嬴政！衣履仍是一等，已經不起歲月。目光依然鋒鋒，不怒而威，不過鬢發殘亂，整個人有點過氣。他仰天一站。蒙天放大吃一驚，倒退一步：“陛下”始皇帝望定他當年的臣子，仿如隔世。他深沉地道：“徐福一去不返，朕坑四百六十餘名儒生於鹹陽城外，惟未息心，及至五次巡行，病重沙丘，遂孤注一擲，吞下一顆殘留之長生不老藥。”“陛下終於也吞下丹藥了？”他點頭：“朕假死之時，渾身發出奇臭，趙高與五六宦官，把聯放置於可調節溫度之輓轎車中，隨車以一石鮑魚辟臭，自九原直道抵達鹹陽，葬於驪山陵。”“陛下叱吒風雲，可惜，世道已變。”始皇帝自嘲地一笑：“朕只贏得‘暴君’惡名，生生不息。”“不，”蒙天放耿直地道：“是聖、是魔，千秋功過，未可輕議。”“無故，”他面對這同一時代的、同一命運的英雄人物，有點歎效：“朕與你，千秋不死，似亦難容於世。”“陛下將何去何從？”他靜默一下，苦思：“朕也不知，朕連立錐之地，亦付厥如。”回首自己一手興建的、輝煌而又宏偉的地宮，以為可以萬世長居，雄霸天

위 인용문을 통해 보듯이 이 소설은 진시황과 몽천방이 2천여 년 후 서로 만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인생과 세사의 무상함을 더욱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시황이 자신이 현재 처한 곤궁한 처지를 잘 알면서도 미친 듯이 웃으며 옛날의 위풍을 되찾고자 떠나는 허식적인 행동은 영웅의 비참한 말로와 함께 세사의 무상함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상업성과 관객들의 재미를 의식해야 하는 영화라는 장르의 한계로 인해 영화 「진용」은 소설에서처럼 주제를 암시하는 이런 설리적인 긴 대화를 삽입하지 않았다. 다만 영화는 원작 소설에 나타난 이런 주제의식을 영화적 방식으로 굳이 굳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영화 초반부 진시황이 몽천방을 황궁으로 데려간 후에 장성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서로 의견 충돌을 벌이는 장면에서 진시황이 장생불사를 추구하며 영원한 제국의 꿈과 야망을 드러내자 몽천방은 그것은 인간의 황당하고 헛된 꿈일 따름이며, 하늘의 뜻에 따라야 함을 간언하였는데, 이는 인생무상의 「진용」의 주제를 영화에서 암시한 부분이다. 또 1930년대에 들어와 몽천방이 백운비와 주리리의 꼬임에 빠져 시내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방에 들어온 주리리에게 몽천방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였는지 물어보는 장면도 이런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몽천방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기 위해 들어온 주리리가 그의 머리를 매만지자 그는 옛날 한동아가 자신의 머리를 빗어주던 정다웠던 당시를 회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간 간직한 동아의 비단신을 그녀에게 되돌려주며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였는지를 물어보지만 그녀는 비단신이 자신의 것인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물음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나가버린다. 몽천방은 허탈감에서 옛날 동아와 나누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영화 속 장면도 세사의 무상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밖에도 영화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세사의 무상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를테면 몽천방이 능 안에서 현대인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인 후에 주리리가 영겁결에 탄 비행기를 타고 능 밖으로 빠져나온 후, 몽천방이 주리리를 업고 전원을 걸어가면서 그의 눈에 비친 30년대 현대 중국의 풍경이라든지 두 사람이 나누는 일련의 대화²⁴⁾도 격세지감과 세사의 무상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진용」에 나타난 무상함은 무엇보다도 고대인들과 현대인들 간의 ‘차이’를 통해 절묘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전술한 바와도 같이 고대인들의 단아하고 고아함과 현대인들이 천박하고 저속함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테면 동아는 원래 분서갱유를 통해 죽을 운명에 처했던 유생의 딸로서 나름대로의 개성과 절조가 있는 ‘우아한’ 여성이라 할 수 있지만, 1930년대의 동아는 영화 속에서도 보듯 교양 없이 껌을 씹으며 함부로 말을 내뱉는 3류 배우 천박한 여성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리하여 독자와 관중들은 타락한 주리리를 보면서 동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된다. 「진용」은 이런 고금의 비교와 변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옛날을 아련히 그리워하게 하면서 동시에 세사의 무상함을 전하고 있다. 따라

下。它花上了三十七年，七十二萬人力，舉國的財富……嗚呼亦歸於塵土，再無覓處。是的，他連一個棲身之所也沒有，舉頭不見片瓦。……他開始仰天狂笑，雙目也發出惱人的精光。他人不死，心也不死：“哈哈！想朕曾一手統領，天下之大，一望無涯，朕不相信找不到容身之所，朕要重振雄風！哈哈——他在狂笑聲中，孤傲地往北去了。”- 이벽화, 앞의 책, 244~245쪽.

24) 영화 속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 “몽천방: 무슨 나무가 잎이 없지? 주리리: 이건 나무가 아니라 전신주예요. 주리리: 그 무덤에는 얼마나 오래 있었죠? 몽천방: 진시황 시대가 몇 년 전이었소? 주리리: 지금 역사 시험 봐요? 당, 송, 원, 명, 청, 잘 모르겠네. 당신이 그때부터 살았다면 3천 살 즈 됐을 거예요.”

서 독자들은 이런 고금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회고와 무상의 깊은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진용」이 전하고자 하는 이런 깊은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타락한 1930년대의 동이를 보면서 소설 특히 영화의 후반부가 재미없다고 비평한다면, 「진용」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V. 나오는 말

영화 「진용」은 이벽화의 소설 「진용」을 극본으로 한 작품으로, 이벽화 특유의 고금을 넘나드는 기이한 상상과 치정을 바탕으로²⁵⁾ 회고의 정과 무상의 감상(感傷) 등 중국인 특유의 정서가 잘 반영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남아의 뜻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경략함에 있다고 보는, 공리적인 제국건설의 야망과 장생불사의 영화를 추구하는 진시황과 그와는 반대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시하며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몽천방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진시황이 추구한 것이 장생불사라고 하면 몽천방이 추구한 것은 영원불변의 치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진용」의 결미 부분에는 몽천방이 격세지감의 무상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슬퍼 통곡할 때, 바로 그 즈음 몽천방의 변함없는 치정에 감동한 주리리가 그 곁으로 돌아와 그의 가슴에 몸을 던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끌어안고 흐느끼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 소설과 영화의 클라이맥스이자 주제 사상이 잘 녹아있는 장면이다.

주리리가 멀리 보니 장성 높은 곳에 쓰러져 우는 사람이 보였다. 그녀는 처음엔 그를 떠나려고 하였지만 떠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천하가 이리도 넓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몸을 둘 곳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그녀도 미친 듯이 달려갔다.……달려가 그의 품속에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저는 돌아갈 집도 없고, 금덩어리도 제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 주인공인지 뭔지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진 금덩이를 꺼내 힘껏 장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금덩이는 계곡 아래로 떨어진 듯했다. 두 사람은 흐느끼며 울었다. “당신은 제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는 듯,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이 말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다만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직도 그런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몽천방은 그녀를 힘껏 껴안고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옛날처럼. 그의 품속의 동이는 옛날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녀가 그에게 준 신은 아직 거기에 있었다.²⁶⁾

25) 이벽화에 대해 王德威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벽화의 문장은 빈약하여 그리 불 만하지 못하지만, 고금과 생사를 넘나드는 상상력과 남녀 간의 사랑과 윤회에 대한 통찰, 그리고 업보에 관한 묘사 등은 종종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李碧華的文字單薄, 原無足觀, 但她的想象穿梭於古今生死之間, 探勘情欲輪回. 冤孽消長, 每每有扣人心弦之處.) - 王德威, 『小說中國』, 臺灣: 麥田出版, 1994, 221쪽.

26) “朱莉莉遙望長城高處哭倒的男人。她決定回頭, 不走了。因為, 天下之大, 二人都覺得自己無處容身! 她也一直地狂奔……飛撲至他懷中。什麼也不管, 豁出去: “我無家可歸, 金子對我也沒意思, 我也不要當什麼女主角了。”一邊說, 一邊把金子拿出來, 用

30년대의 동아인 주리리가 결국 몽천방의 치정에 감동하여 그에게 돌아오고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하게 됨은 이 소설과 영화가 사람의 진실한 정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킨다는 치정의 가치를 역설하고자 함일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통곡한 것은 몽천방은 주리리의 행동에 감격한 것 외에도 세사의 무상함에 일찍이 눈물을 흘렸고, 주리리는 몽천방의 치정에 감동하여 눈물을 뿌린 것이다.²⁷⁾ 이처럼 이 작품들은 모두 치정과 무상함에 통곡하며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이 작품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감동은 옛날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회고의 정한이다. 이 소설과 영화를 감상한 사람들이라면 의례히 백운비를 비롯한 현대인들의 세속적인 물욕과 천박한 주리리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순수한 옛날의 한동아를 그리워하게 되면서 고대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작품과 영화는 모두 옛사람들의 순수한 치정의 세계를 회고와 무상함의 대상으로 비장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덕주 역해, 『서경』, 해원출판사, 2000.
- 양백준 역주, 이장우·박종연 한역, 『논어역주』, 중문출판사, 1997.
- 이경은, 「이벽화 텍스트의 홍콩 노스텔지어와 욕망연구」,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최병규, 『다시 쓰는 중국풍류문학사』, 한국학술정보, 2018.
- _____, 「세설신어를 통해서 본 치정과 무정의 경지」, 『중어중문학』 33, 2003.
- 羅貫中, 『三國演義』, 臺灣: 三民書局, 1989.
- 劉登翰, 『香港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9.
- 葉慶炳, 『中國文學史』, 臺灣: 弘道文化事業, 1980.
- 葉太平, 『中國文學的精神世界』, 臺灣: 正中書局, 1994.
- 王德威, 『小說中國』, 臺灣: 麥田出版, 1994.
- 李碧華, 『李碧華 作品1 青蛇』, 北京: 新星出版社, 2018.
- 張曉陽, 「女性目光下的女性和感情 - 淺談李碧華小說的女性形像塑造和愛情命運主題」, 『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學報』 2: 3, 2011.
- 鄭娜, 「天下言情第一人 - 論李碧華小說的創作特點」, 『青春歲月』 21, 2013.

力往長城關外扔掉, 好像扔到大腳底去。泣不成聲。“你知道我要什麼?”她像對自己說, 又像對所有的人說: “我並不貪心, 只要一個真真正正對我好的人。我要的, 本來就很古老, 不知爲什麼, 總是得不到。蒙天放緊緊地擁著她, 輕撫她的頭, 就像當年, 他懷中冬兒的淚滴在重甲。她送給他的鞋, 原來仍在。”- 이벽화, 앞의 책, 233쪽.

- 27) 이 부분에서 소설과 영화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난다. 소설에서는 주리리가 금덩어리를 계곡 아래로 멀리 던지지만 영화에서는 몽천방이 주리리의 비단 신을 멀리 던져버린다. 또 이 부분은 소설에서는 마지막 결미 부분에 해당되지만 이와는 달리 영화에서는 결미가 아니라 중반부에 해당한다. 대신 영화에서는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많은 무술 장면과 전투 신(scene)들을 삽입시켰다고 할 수 있다.

中國叢書編輯委員會, 『中國文學欣賞全集』, 臺灣: 莊嚴出版社, 1983.

陳奇猷, 『韓非子新校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湯顯祖, 『牡丹亭』, 臺灣: 里仁書局, 1986.

黃壽祺·張善文, 『周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1996.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3일에 투고되어,
2018년 12월 1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월 1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Infatuation(癡情), Meditation on the Past(懷古) and Transience of Life(無常) Reflected in 〈A Terracotta Warrior, 秦俑〉 Novel and Film

Choi, Byeonggyu*

The film 〈A Terracotta Warrior, 秦俑〉 is based on Lilian Lee(李碧華)'s novel named 〈秦俑〉. Lilian Lee is one of the most famous scenario writers and novelists in Hong Kong. The film and the novel 〈秦俑〉 seriously described the typical chinese culture and sentiment such as infatuation(癡情), meditation on the past(懷古) and transience of life(無常). So if we do not understand these chinese cultural background, we will be prone to make mistakes in appreciating and criticizing the film. Basing on this idea, this paper researches very common chinese cultural psychology - infatuation(癡情), meditation on the past(懷古) and transience of life(無常). The meaning of Chi-Qing(癡情, infatuation) in modern chinese language is not like its korean and japanese meanings - 'pervert or weird'. Chi-Qing(癡情) in chinese language means the deep and pure love between man and woman. 'Meditation on the past(懷古)' means the feeling of missing past and old people and generation. And 'transience of life(無常)' is the sad feeling of briefness and impermanence on the life and world. The novel 〈A Terracotta Warrior, 秦俑〉 and its film both described the infatuation of love of the ancient chinse people with the attitude of meditation on the past and transience of life.

[Key Words] 〈A Terracotta Warrior, 秦俑〉, Lilian Lee(李碧華), infatuation(癡情), meditation on the past(懷古), transience of life(無常)

*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